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



www.medisongroup.co.kr

고객을 향한 단 하나의 진심!

BNK 부산은행

제1399호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메가시티 논의 신계용 과천시시장 만난 오세훈 시장, “시민 불편해소 초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과천의 서울 편입 방안 등 최근 화두가 된 ‘메가시티’ 구상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 전 모두발언에서 “과천시는 (서울의) 서초구, 관악구와 맞닿아 있는 데다가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도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 시장은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를 언급하며 메가시티 논의가 시민 불편과 불합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광역교통이 발달하고, 도시연담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시민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행정구역은 과거에 머물러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저해했던 행정구역 재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에 인접한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큰 틀에서 행정구역 체계를 유연하게 다시 바라봐야 한다”며 “해묵은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시작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편입이라는 작은 틀을 넘어 서울과 국가의 경쟁력 확대를 염두에 둔 수도권 재편,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행정구역 재편을 통해 국토이용과 도시계획의



29일 서울시장 시청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만나 면담에 앞서 손을 잡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미래지향적 논의에 나서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용 공약이나 당리당략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국가 대계를 세워나가는

김포·구리·고양 이어 서울 편입 논의...“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심화”

오 “대한민국 전체 큰 틀서 봐야”...과천시장 “자치구보단 자치시 바람직”

의미를 담은 것으로도 읽힌다.

오 시장이 서울 편입을 요청하거나 면담을 희망하는 인접 지자체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21일 이동환 고양시장을 면담한 바 있다.

또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을 만났으며,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

시장과 3자 회동을 했다.

신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메가시티 구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천시 발전에 유리한 방향은 무엇인지, 과천시

민이 갖고 있는 권리나 혜택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과천시는 안양, 의왕, 군포와 하나로 묶이는 안양권 100만 도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된 적도 있지만 과천시민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과천시가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서울시로 편입이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은 약 30분간 진행됐다.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신 시장은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과천시의 발전과 과천시민이 갖는 권리·혜택 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도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독립변수’와 관련해서는 “자치구보다는 자치시가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치시 형태로 편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천시가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찬반이) 5:5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과천시는 지난 24~28일 과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반대 응답 비율도 높은 데 대해서는 “과천에 정부청사가 있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가

있다”며 “아이들 키우기 좋고 환경적으로 깨끗하다는 브랜드를 지키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신 시장은 “과천의 브랜드라든가 자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크다”면서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있어서 안양권보다는 서울권에 포함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과천시는 공동연구반을 꾸려 구체적 편입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 송원기 기자

尹 대통령, “부산 시민과 국민 실망시켜 죄송...전부 제 부족”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치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묵도하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참여해줬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하는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다. 부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두 축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을 해양, 국제 금융, 첨단 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영·호남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엑스포를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아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료와 경험, 우리의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민재 기자

POSCO INTERNATIONAL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채상병 사건' 박정훈 전 단장,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해임

박 전 단장 측 "인사 소청할 것"...상관인 사단장·사령관은 '무풍지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29일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

해병대가 이날 박 전 단장 측에 서면으로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를 보면 심의위는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된 데 이어 이번에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까지 해임된 것이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인사 소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박 전 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뀐 채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 당국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과 또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 보직해임 여부를 심사한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두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두 중령은 사건 이후 타 부대에서 일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해당 부대 대장으로 남아 있었다. 이와 달리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장성'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금껏 별다른 징계나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지 않았다.

임 전 1사단장은 최근 장군 인사에서 소장을 유지한 채 서울 시내 대학으로 정책 연수를 갔고, 김 사령관은 유임됐다.

한편 해병대는 석 달 넘게 공석이던 수사단장직에 최근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이던 조 모 대령을 임명했다. 그는 군사경찰이 아닌 보병 출신이다.

해병대가 이번에 박 전 수사단장을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해임하면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을 강조했는데, 보병 출신을 수사단장에 임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성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등학교 영어수업에 '로봇 교사' 투입된다

학생과 1대 1 회화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생과 1대 1 영어회화를 하는 로봇이 투입된다.

영어 듣기와 말하기 교육 등을 위해 챗봇, 스마트폰 앱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외국 학생과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공동 수업도 확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를 활용한 로봇과 앱을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개발 중인 '영어 튜터 로봇'이 5개 초·중학교에 각각 1대씩 보급된다.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서빙 로봇과 유사한 생김새의 이 로봇은 AI 기능이 탑재돼 학생과 1대 1로 영어 대화를 나누는 기능을 갖췄다.

로봇은 교실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면서 원어민처럼 영어회화 시범을 보인다. 학생의 발음을 교정하고, 학습이 뒤쳐진 학생에게 다가가 개별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수업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사업 후 성과가 좋으면 수요 조사를 거쳐 영어 튜터 로봇을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영어 교육을 위한 '음성형 챗봇 앱'도 내년 3월 3개 초·중학교에 시범 도입한다.

앱에서 학생이 특정 상황을 설정하면 '프리토킹(자유대화)'이 가능하다. 예컨대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하는 상황을 가정한 영어회화 등이 가능하다

앱은 무료 대여 디지털 기기인 '디벗'이나 개인 휴대전화, PC 등에 설치해 쓸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용 중인 'AI 팽폭'의 홍보와 연수도 강화한다. AI 팽폭은 초·중·고 학생용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으로 교과 과정과 연계돼 있다.

중학생 대상의 영어 말하기 콘텐츠와 시스템도 개발하며, 영어 도서관 앱을 활용한 독서 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 영어교사 에듀테크 지원단을 구성한다. 교육청의 자체 AI 기반 영어교육 자료도 개발해 보급한다.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현재 일부 학교에 도입된 '국제공동수업'을 확대한다.

국제공동수업은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통·번역 시스템을 이용해 서울 학생과 외국 학생이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방식의 수업이다. 올해는 각급 학생들이 코딩을 배운 후 공동 주제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재 198개 학교에서 18개 국가와 교류 중인데, 2026년까지 중학교 1학년 전체와 희망하는 초·중·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수업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을 지원한다.

원어민 보조교사도 확대한다. 희망하는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한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최대 2명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 백지은 기자

이재명 "이상적 주장하다 총선 질 수도"...'병립형'에 힘신나

총선 승리 현실론 고려해 '준연동형' 공약서 후퇴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 권한을 쥔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당은 현재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

안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쪽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의명분을 앞세운 주장이지만,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패배가 뻔해 이 대표에게는 부담스러운 요구다.

'원칙이나 실리냐의 고민 속에 이 대표가 실리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선거는 승부다"라며 "이상적 주장으로 (총선서)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나 위성정당 출현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선에서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의 폭주와 과거로의 퇴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대선 당시 대국민 약속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는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진성준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약 파기 시) 국민의 지탄이 무섭지만, 정치의 이상과 당면한 현실 중 무엇이 선제적 과제인지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총선 당시 약속을 깨고 '현실론'을 택한다면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큰 숙제로 남는다.

민주당 의원 75명은 전날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선거제를 둘러싼 당내 분열상이 부각되자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라는 나름의 절충안도 고려하고 있다. / 안종수 기자

수출기업의 더 큰 성장에 Ksure가 함께합니다

격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업들의 무역활동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미래 산업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벗을때까지 태극마크 못 단다

축구협회 “수사기관 명확한 결론 나올 때까지 대표 선발 안기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빌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클린스만호는 한때 대표팀 ‘주포’였으며,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는 황의조 없이 2024 카타르 아시안컵에 나서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이 64년 만의 우승을 목표로 내건 이번 아시안컵은 내년 1월 12일 개막한다.

황의조는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받지 못한다면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은 자신의 3번째 메이저 대회 출전이 무산된다.

1월 아시안컵 출전하려면 그 전에 불기소 처분받아야

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아시안

컵에 나가려면 그전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영영 태극마크를 못 달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 밖의 사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례로는 2018년 병역 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했다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의 징계를 받은 장현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폭로된 문제의 성관계 영상이 황의조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상식적으로 그 죄과가 장현수의 것보다 가볍

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 위원장은 “수사 중이어서 (축구협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 등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징계 심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

한 A씨가 황의조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로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폴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는 논란 속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으로부터 계속 부름을 받았고, 9월, 10월, 11월 A매치 총 6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국내에서 치른 11월 16일 싱가포르전 뒤인 18일 황의조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21일 원정으로 치러진 중국전에 교체로 투입되자 여론은 악화했다.

또 앞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씨가 황의조의 ‘전 여친’이 아니라 ‘형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현재 영국에서 소속팀 일정을 소화 중인 황의조는 지난 26일 열린 홈 경기에서 시즌 2호 골을 넣고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듯한 세리머니를 했는데, 이는 외려 부정적 여론이 극에 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와 합의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준용 기자



신원식, 전국 지휘관 회의 주관

군 수뇌부 교체 후 첫 지휘관회의 신원식 “망동은 파멸의 시작”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북한을 겨냥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적의 도발하면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 ‘즉·강·결(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이 ‘망동’, ‘파멸’ 등의 다소 과격한 용어를 동원해 북한을 비난한 것은 최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핵금지지역 설정’(제1호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

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지난주 후반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관총으로 무장하기 시작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급증했다.

JSA 내 병력의 무장과 서해 NLL 인근 해안포 개문은 모두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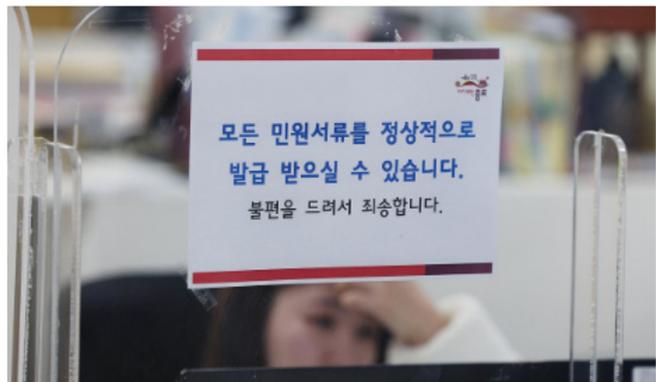
최근 군 수뇌부가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에는 김병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한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 현 안보 상황과 관련한 군사적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군의 최근 군사 동향을 보고 받은 후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라 강한 힘”이라며 “평화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역제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역사의 변함없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 서정미 기자

전산망 오류 원인에 줄줄이 지목된 업체들 “할 말은 많지만…”

“시스템 총괄해야 할 정부가 업체에 책임 떠넘겨” 비판도



주민센터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재가동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관련 업체들을 잇달아 지목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울러 행정망 시스템을 총괄할 책임

위크 장비인 ‘14스위치’의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전산망 장애 원인이 일주일 만에 ‘14스위치’에서 ‘라우터’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업체

지만…”이라고 말씀을 흐렸다.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오류 원인을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체 관계자는 “원인 분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우리와는 공유하지 않았다”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 입장을 낼 수도, 반박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장비를 정보관리원에 납품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보관리원 측이 ‘오류(개선) 작업을 하라’고 호출해 조치한 뒤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철수했다”며 “그런데 다음날 행안부가 이번 전산망 오류는 ‘우리 장비 때문’이라고 발표해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다만 고객사라 할 수 있는 정보관리원과의 관계나 향후 정부 사업 입찰 과정에

“발표 직전까지도 몰라…관련 데이터 공유하지도 않아”

이 있는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도, 오류 수정 작업도, 책임도 업체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면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넘게 이어진 전산망 사고 원인 분석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해당 라우터는 2016년 미국 시스코에서 도입한 제품으로, 국내 업체인 대신정보통신이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산망 완전 정상화를 발표했다던 지난 19일에는 장애 원인을 다른 네트

웬은 익숙한 부분이 크지만, 행정안전부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관계나 향후 정부 사업 입찰 시 불이익 등을 이유로 선불리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 측에 직접 ‘문제가 났으니 책임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것이기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면서도 “먹통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발표한 건데 거기에 다시 첨언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장비 설치와 관리, 오류 조치 등을 요청했고, 우리 그 요구에 충실히 응했을 뿐”이라며 “할 말은 참 많

서 받을 불이익 등을 우려해 문제 제기나 반박 등이 쉽지는 않은 모양새다.

실제로 먹통 원인으로 지목된 ‘라우터’를 생산하는 시스코 측에 공식 입장을 묻자 “내부 규정에 따라 고객의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안부가 세부적인 오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조치에 나서기보다는 민간 업체의 장비 탓으로 돌린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김한울 민주노총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 사무국장은 “정보관리원과 계약된 수많은 업체는 맡겨진 역할 정도만 이해할 뿐이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유현주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미국주식 투자, 알람은 끄고

미국주식 거래 시간

- 17:00 - 18:00: 프리마켓 시간
- 22:30 - 01:00: 정규시장
- 05:00 - 06:00: 프리마켓 시간

NH농협금융

24시간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드리는 24시간 주식서비스

- ▶ 해외주식 수수료 면제
- ▶ 해외주식 리밸런싱 서비스
- ▶ 월배당 미국주식
- ▶ 미국주식 공모주 청약

주주 주간거래 오픈

언제까지 알람 맞춰가며 미국주식 하실래요?
이제 알람은 썩 끄고! NH투자증권만 딱 켜세요!

NH투자증권에서는 24시간 미국주식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통예금보다 보호받지 않습니다. ※주식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0.25%(미국, 온라인 기준) 및 계좌비율 0.0008%(미국주식 기준, 매도시, 1센트 미만일 경우 1센트 부과) 등/오프라인 동일, 국가별 상이발생하며 기타 수수료/제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24시간 거래] ※미국 주간거래 서비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이 승인한 대체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지원하며 미국 주간거래 대체권 주문은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으로 연결되지 않고 주간거래 종료 시 취소되며 증거금 해지는 주간거래 장 종료 후 순차적으로 처리 ※거래량이 매우 적어 가격변동이 크거나 또는 가격이 왜곡될 수 있음 ※당일 권리 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거래소에서 매매를 제한할 수 있음 ※위 사유 외에도 시세확인 및 주문전송이 정규장 대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지 제2023-00859호(2023.03.16 ~ 2024.03.14) 투자, 문화가 된다

여야 '30일 본회의' 앞두고 전문 고조... '이동관 탄핵안' 대치

김의장 결정 주목... 의장실 "여야 합의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 노력"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가운데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전문이 고조되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를 연속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일간 본회의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의 소집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관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해당 날짜에 본회의를 열어 줄지에 달려 있어 김 의장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0일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본회의이지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굳이 본회의를 열자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12월 1일에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는 한 30일 본회의 역시 '소집 불가'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김 의장을 압박해 12월 1일



'연대외교' 포럼 참석한 이낙연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소집한 뒤 탄핵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종석 현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다음번 본회의가 예정된 12월 8일 처리해준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의회 폭거 대응 비상 의원총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원내 주요 현안으로 인해 의총이 수시 소

집될 예정으로 전원 반드시 의총에 참석해 달라"며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즉 30일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이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철회로 계획이 어긋나 자진 철회했던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전날 재발의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장이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전제

로 말했다"며 "안 열리는 상황은 가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달라. 본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된다"며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하면 된다.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일단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만 단독 강행 처리할 경우 연말 국회가 파국으로 향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합의를 위해 최대한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꾸준히 여야 원내대표와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채경석 기자



인사말 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윤심은 민심 따라갈 것 외연확장에 절박감 가져야"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윤심(尹心)은 민심을 따라갈 것"이라며 보수 통합과 외연확장의 길을 열어나간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붕괴로 재시공하는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원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요즘 대통령의 뜻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민심에 대한 얘기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의 뜻은 결국 국민의 뜻과 합칠 수밖에 없다"면서 "(개각으로) 만약 저의 역할이 바뀌게 되더라도 국가와 정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 동력과 국정 운영 기반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쉬운 면이 많다"면서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수 통합과 외연확장

에 보다 더 진심으로 절박감을 가지고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서의 구체적 계획이나 역할을 얘기하기보다는 큰 뜻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개각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국토부가 만약 해당이 돼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에 걸맞게 해야 할 책임은 다하는 예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10월 말 내놓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당정 협의, 다른 부처들과의 협의,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노건우 기자

與최재형 "하태경 종로 출마에 구민들 화나...내 지역구 지킬 것"

"野 현역 지역 놔두고...하태경 결정에 실망" 당내 비판도



발언하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9일 "하태경 의원이 종로에 나오더라도 제가 종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하 의원의 종로 출마에 대해 종로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로에 현역이 있어서 어렵사리 당 조직을 추슬러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하 의원이) 전혀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다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 의원은 지난달 수도권 협지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뒤 최근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종로 현역인 최 의원을 만나 양해를 구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지난 13일께 이뤄진 하 의원과의 만남이 자신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하 의원이 수도권 협지에 출마하겠다고 하고 당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서 제가 '만나서 밥 한번 먹자'고 했다"며 "수도권 어디를 염두에 두느냐고 물으니,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신이 나와 종로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며 상의하겠다고 하면 헤드릴

말씀이 많은데, 평생 정치하신 분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고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뭐 드릴 말씀이 있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하 의원이 이미 출마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자신이 항의나 만류는 안 한 것일 뿐인데 이를 두고 하 의원이 "양해를 구했다"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양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뜻인데,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워딩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이야기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종로 출마 설도 있는 상황이라서 '하 의원이 당에서 교통정리 해주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의 종로 출마 선언에 대해선 당

내에서도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출마해 혁신의 선발주자로서 자극을 줬으면 어떨을까"라며 "상당히 실망스럽고 아쉽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전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하 의원이 수도권 협지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의원님 존경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은 '그 문자를 취소합니다'라고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날 YTN 인터뷰에서 "이대로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원희룡·한동훈 장관 이름이 등장한 거다. 그래서 제가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에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주환 기자

김태호 1차장, "북한인권은 대북정책 본질"

어떤 외교서든 핵심의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29일 "북한 인권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현인(賢人)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대북 정책이 되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어떠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대화

도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축사에서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하며 "특히 한국의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익숙한 북한 MZ세대인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 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최근 반동사상문 화배격법 등으로 주민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 조철형 기자

어려웠던 엔(¥)테크, 내 편 하나가 생겼다

FX마켓으로 손쉽게 환테크하고,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으로 스마트하게 사용하면 끝

내 편 손님 상담센터 (☎ 1566-0034)

FX마켓 원화, 외화 계좌 간 손쉬운 이체가 가능한 모바일 개인 딜링 서비스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해외주식에서 해외결제까지, 최대 10개국의 통화 예치가 가능한 외화 다통화 일괄금 통장

하나은행

검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계열사 임원 소환

참고인 신분 조사...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열사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완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PB파트너즈 상무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제빵 기사들에게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PB파트너즈 임원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낫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노총 하성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PB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접수했고,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 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같은 달 30일 SPC그룹 내 허영인 회장 사무실 등을 각각 압수수색하며 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달 14일에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와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낫다"며 기각했다.

/ 김현성 기자

'흥기난동범' 최원종 정신감정 받는다 법원, 변호인 요청 수용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에서 흥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흥기 난동범' 최원종(22)이 정신 감정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10일 2차 재판에서 신청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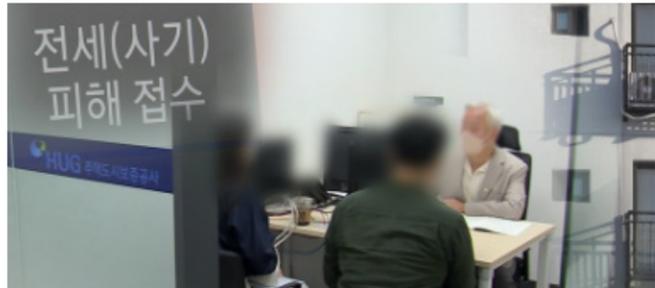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일단 중단한 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

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다음 재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감정 결과가 12월 하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재판 기일은 애초 예정된 12월 7일에서 한 달여 뒤인 1월 4일로 변경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앞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증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 이정민 기자



'폭언 논란' 카카오 김정호 "골프회원권 매각 두 달간 전쟁"

최근 폭언 논란을 빚은 김정호 카카오 CA협의회 경영지원총괄 겸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이 폭언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내부 경영 실태를 공개 지적했다.

ICT업계에 따르면 김 총괄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지난 9월) 첫 출근 날 김범수 창업자가 법인 골프 회원권을 조사해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먼저 브라이언(김범수 창업자) 법인 골프 회원권부터 내놓으시죠"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은 "카카오는 망한다면 골프 때문일 것이다"라는 소문이 퍼다했지만 파악해보니 100여 명의 대표이사들은 골프 회원권이 없었는데 특정 부서만 투어프로 수준으로 치고 있었다"며 "한 달에 12번이면 4일짜리 KPGA 대회 3주 연속 출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창업자의 사회공헌재단인 브라이언 임팩트 이사장이기도 한 그는 "골프 회원권을 75% 정도 통째로 매각하겠다고 보고하고 김 창업자로부터 '비상경영회의 때 PT(프리젠테이션) 발표도 하고 정식 결재를 올려달라'는 답을 받았다"며 "이후 두 달간은 정말 전쟁 수준의 갈등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 총괄은 "주말 저녁에도 골프의 필요성에 대한 하소연 전화가 이어졌다"며 남부CC, 아시아나CC, 파인크리크CC를 가지



고 있는 자신이 '골프를 안 쳐봐서 뭘 모른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총괄은 전날 저녁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논란이 된 폭언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카카오 AI 캠퍼스 건축팀의 제주도 프로젝트 투입 제안에 대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 임원과 갈등으로 10분 정도 언쟁이 계속됐지만 아무 말도 안 하는 다른 임원들을 보다가 분노가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700억~800억이나 되는 공사업체를 담당 임원이 결재·합의도 없이 저렇게 주장하는 데 모두 가만히 있는가"라고 했다"며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례 2가지를 모두에게 이야기하며 이런 '개X신'같은 문화가 어디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은 "조금 후 제가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특히 '개X신'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사과한다고 3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며 "업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나온 한 번의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 박정수 기자

교사 목 졸라 법정구속된 학부모...검찰 "형량 낮다" 맞항소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졸랐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학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를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이는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낮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아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다"라며 폭언을 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범법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 양승준 기자

'빌라왕 배후' 업자, 2심도 중형 "보증금 부풀려 공범에 교부"

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4-3부(이준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그리고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모의 과정이 없거나 서로 직접 연락한 바 없어 직접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임차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개인이 건축주 등 매도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입금하도록 유도한 점, 부풀려진 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교

부돼 리베이트 형태로 공범들에게 사전 비율대로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형식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교부됐으나 사실상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교부됐다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겹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 진성훈 기자




합리적이니까 | 믿을 수 있으니까 | 튼튼하니까



분양원가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도 강화



공사 자산공개

백년주택에 삽니다 서울 삽니다



외국 기업 붙잡기?...시진핑 “지재권 보호·외자기업 권익 수호”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서 외국 관련 법률시스템 개선 주문...1~10월 외국인투자 9.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투자기업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법치화 및 국제화를 강조했다.

28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0차 집단학습에서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반(反)간첩법 시행과 경영환경 악화 등 영향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자 외국 자본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9.4% 줄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면서 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종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제시하며 외국 자본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은 또 “높은 수준의 해외 무역 규칙을 능동적·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며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시험구 등 대외개방 경험을 제때에 법률로 만들고 높은 수준의 개방,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영향력이 큰 대외개방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개방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중국 내 외국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와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시 주석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확고히 유지하고 국제규칙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제관계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추진해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 주석은 “외국 관련 법치 업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치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국제법의 발전과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규호 기자



두바이 인공군도 '더 월드' 일부

“1천억 두바이섬 넘기겠다” 감형 급한 마약 밀매업자 법정 제안

이탈리아 마피아 소속 마약 밀매업자가 15년에 가까운 징역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하자 감형을 위해 1천억 상당의 개인 소유 섬을 헌납하겠다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의 국제 마약상 라파엘레 임페리알레는 전날 나폴리에서 열린 재판 중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임페리알레는 대마초를 판매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커피숍에서 범죄에 발을 들였으며, 이후 네덜란드의 리두안 타기, 아일랜드의 다니엘 키나한, 보스니아의 에딘 가차니노와 함께 슈퍼 마약 카르텔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 사법당국은 임페리알레의 조직이 페루산 코카인을 사실상 독점하는 등 세계 50대 마약 카르텔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2021년 8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체포돼 2022년 3월 이탈리아로 송환됐으며,

14년 10개월의 징역이 구형됐다.

이번 재판에서 임페리알레가 헌납하겠다고 한 섬은 두바이 해안에 세계 지도 모양으로 만들어진 ‘더 월드’라는 인공 군도 중 하나로, ‘타이완’으로 불린다. 그 가치는 6천만~8천만 유로(약 850억~1천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피 중이 섬을 구입하고 한 달에 40만 유로(약 5억7천만 원)를 쓰며 화려로운 생활을 즐겼다.

마우리치오 디 마르코 검사는 “임페리알레가 감형을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제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그의 진의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을 계기로 사법당국의 정보원으로 서 ‘반 고흐 보스’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의 이력도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 임페리알레는 정보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도난당한 반 고흐의 작품 2점을 이탈리아 정부에 반환했다.

/ 유현철 기자

CIA 간부 폐북에 ‘팔레스타인 깃발’ 사진...바이든에 반기?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 간부가 소셜미디어에 팔레스타인 깃발이 담긴 사진을 올리자 CIA가 직원들에게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CIA의 한 분석 담당 부국장보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의 첫 화면에 한 남성이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드는 사진을 올린 시점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전쟁이 발발한 뒤 2주 지난 무렵이었다. 팔레스타인에 연대의 뜻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정보당국의 간부가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견해로 해석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CIA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FT에 따르면 이 간부의 다른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자유를(Free Palestine)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있는 사진도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은 몇 년 전 올라온 것이라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CIA는 과장이 커질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CIA는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게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NBC

가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이달 중순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 직원 약 100명이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무부 내부 메모에 서명한 점이 단적인 사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행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깊은 분노가 나왔다”며 “심지어 일부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 황순길 기자

‘교전 격화’ 미얀마 북부서 말레이시아인 127명 안전지대 피신 취업 사기 당해 현지서 강제노동...30일 본국행 비행기 탑승

미얀마 북부에서 쿠데타 군사정권 정부군과 소수민족 반군 간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지에 고립된 말레이시아인들이 대거 안전 지역으로 피신했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잠브리 압둘 카디르 말레이시아 외교 장관은 전날 “최근에 구출된 우리 국민은 12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있으며 오는 30일 인도네시아 및 홍콩인과 함께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얀마 및 중국 정부가 자국민 구출 작업을 도와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북부 산주 라우카이엔에 자국민들이 고립됐다고 밝힌 바 있다.

라우카이엔은 온라인 사기 범죄와 도박을 비롯해 각종 대형 조직 범죄가 성행하는 곳이다. 이번에 구출된 말레이시아인들은 취업 사기를 당해 현지에서 강제 노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미얀마는 군사정권 타도를 목표로 내건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북부 산주를 중심으로 총공세에 나서면서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전선은 카친, 사가잉, 친, 라카인주로 확대됐으며 반군은 수도 네피도까지 진격할 태세다.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아라칸군(AA), 타양민족해



표적으로 폐허가 된 미얀마 북부 카친주 라우카이엔 지역의 난민촌

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으로 구성된 ‘형제 동맹’이 지난달 27일 대규모 합동 작전을 시작한 이후 미얀마군으로부터 빼앗은 전초기지과 주둔지 등은 최소 303곳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 수백명이 사망했으며, 500명 이상이 투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형제 동맹의 총공세 이후 33만5천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민간인 사망자는 200명, 부상자는 263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광동훈 기자

G7 외무장관 “가자 휴전 추가 연장·2국가해법 지지”

성명 발표...“민간인 보호 및 국제인도법 준수 중요”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은 인질 석방과 연계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교전중지)의 추가적인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 외무장관은 28일(미국 현지시간) ‘이스라엘 및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한 G7 외무장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질 석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만큼 향후 교전중지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성명은 모든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공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따라 자기 방어

에 나설 권리를 강조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민간인 보호와 국제법, 특히 국제 인도주의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이번 충돌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중동)내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한다는 공약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주권 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2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명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휴전에 들어갔고, 이후 휴전 기간을 이를 연장했다.

합의된 6개월간의 휴전이 오는 30일 오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은 카타르, 이집트, 미국 등의 중재로 일시적 휴전 추가 연장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노승만 기자

세대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를 도약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창출할 연구자를 육성하는 R&D

1927년 제5차 솔베이 회의의 사진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마리 퀴리 등 참석자 29명 중 17명이 노벨상을 받아 역사상 가장 독특한 사진이라는 다투어 불기도 했습니다. 광자와 전자를 주제로 한 이 자리에서 현대 물리학의 시대를 연 가장 과학자들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양자 물리학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도 미래의 세계적인 연구자를 키우기 위한 혁신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혁신, 글로벌 R&D를 이끌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 출처: 위키백과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품격 있는 인생
그문이 열립니다

삶의 균형은, 삶의 안정감은
늘 준비하고, 미리 지키는 것
당신 삶의 품격을 지켜나갈
준비된 보험을 전합니다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시작
삼성 고(高)품격 인생보장보험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에는 충분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지급횟수, 한도, 보험금 감액지급내용, 보장개시일,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제외' 등 주요 지급제한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3-1123](tel:23-1123)(브랜드광고파트, 2023.5.31 ~ 2024.5.30)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4240호](tel:23-1123)(2023.9.12~2024.9.11)

검단 사고 7개월만에 합의서...원희룡 “보상 하루라도 앞당길 것”

3자 간 최종 서명...“고품질 자재 쓰도록 중기부와 협의 중”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최종적인 보상 합의서가 작성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 [006360], 인천 검단 AA13 입주예정자협의회는 28일 인천 LH 검단사업단에서 3자 보상안에 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꼬박 7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고, 이어 24일 해당 보상안은 입주예정자 투표율 거쳐 최종 수용됐다.

최종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천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이사비로는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자체 보상금은 9천100만원으로 책정됐고,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다.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상) 이행을 확약 드릴뿐만 아니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보상 일정을) 하루라도 당기겠다”며 “무엇보다 대표자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원하는 분들과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방지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의안 이행 약속하는 원희룡 장관

입주예정자 보상 신청은 내달 10일경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신청 시작일을 가급적 앞당기고 통상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보상금 지급 절차 역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재시공 과정에서 보다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는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공공주택보다는 좋은 자재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주택이 일부러 다양한 고품질 자재를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손발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GS건설이 더 좋은 자재를 쓰려 해도 위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 아바 애로 사항을 많이 느낄 것”이라

며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가 이미 중소기업에 정부도 공동 책임으로 속죄하자는 의미에서, 추가적인 심리적인 선의의 표시라는 면에서 예의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라면서도 “원인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는 면에서 국토부와 LH가 중소기업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실 공사 사태를 일으킨 시공사 GS건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쓴 소리를 했다.

지난달 20일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허윤홍 GS건설 사장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이날 간담회가 처음이다.

원 장관은 허 사장을 향해 “국내 주택 1등 브랜드라는 무게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할 때, 이번 사고의 충격과

부끄러움을 깊이 새기셔서 앞으로 대한민국 주택의 안전과 품질에 있어서는 재탄생 수준으로 자기를 혁신한다는 각오와 실천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오늘 어렵게 합의해주시는 입주민 예정자분들의 그나마 한 줄기 기대와 질책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 사장은 “사고 이후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약속한 대로 안전하고 튼튼하고 살기 좋은 명품 자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와 GS건설이 이번 상황에 대해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관행과 과오를 발견하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계기로 GS건설과 LH가 입주민들에 대한 상담 창구를 즉시 개설해 상담회에서 개별적으로 응대를 하고 거기에 맞춰 일일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약속보다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행 과정에 있어서도 입주예정자분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 장수경 기자



한국 간식 기념품 ‘서울기프트세트’

지난달 방한 외국인 관광객 123만명 올해 ‘1천만명’ 돌파 가능

올해 누적 888만명...지난달 일본 관광객 25만5천명 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2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3%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월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올해 7월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는 데 이어 지난 달까지 6달 연속 100만명 선을 웃돌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25만5천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24만9천명), 미국(11만6천명), 대만(9만7천명), 태국(4만6천명), 베트남(4만6천명), 필리핀(4만3천명), 홍콩(4만1천명) 등 순이었다.

지난 9월에는 중국이 26만4천명으로 일본(25만명)을 앞섰으나 지난달 다시 역전됐다.

관광공사는 “10월에 올해 들어 최대 월

방한객을 기록했다”며 “지역별로는 구미주시장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7%, 아중동(아시아·중동) 지역은 86% 수준으로 각각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10월 누적 방한객은 88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3.9% 늘었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1% 수준이다.

국가별 누적 방한객을 보면 일본이 184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154만명, 미국 91만명, 대만 79만명 순이다.

올해 정부 목표인 관광객 1천만명은 무난히 달성하고 미국 방한객도 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해외로 출국한 우리 여행객은 20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4.1% 늘었다. 이는 2019년 같은 달의 95% 수준이다.

올해 1~10월 누적 인원은 1천824만명으로 2019년 동기의 75% 수준을 보였다. / 신형미 기자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출시...해외 결제 시 3% 적립

네이버페이는 해외 어디서나 결제금액 3%를 적립해주는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불카드인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는 연회비나 전월 실적 조건 없이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의 3%를 한도 없이 적립해 준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쇼핑(스마트스토어·브랜드스토어)에서 이용할 경우 결제 금액 최대 1.5%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다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0.3%가 적



립된다. 국내에서는 BC카드 전 가맹점에서, 해외에서는 전 세계 모든 Visa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드 발급 후 3개월 동안

네이버 여행 멤버십인 ‘N트래블클럽’의 스마트 등급 혜택이 제공된다.

네이버페이는 머니카드 출시 행사로 내년 2월 28일까지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발생한 해외결제수수료를 전액 포인트로 돌려준다. 또, 연말까지 국내·해외에서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로 5천원 이상 결제 시 각각 1천원을 포인트로 제공한다. 주변 지인에게 널리 알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 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 박정수 기자

정년퇴직자 15% 재고용하는 KT...70세도 해외근무 SK에코플랜트

노동부,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11개사 사례집 발간

KT는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를 통해 매년 정년퇴직자의 15%를 재고용한다. 50세 이상 직원이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 4년간의 ‘내일설계휴직’ 제도도 운영한다.

SK에코플랜트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길 원하는 직원들은 1년씩 축적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 해외 현장 근무자 중엔 70세 직원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업을 비롯해 중장년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11개 기업의 사례를 모아 29일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제조업, 건설업, 보건업, 운수업 등 여러 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중장년 고용에 힘쓰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KT의 경우 전체 직원의 약 60%가 50대 이상 중장년이다. 퇴직자 재고용과 내일설계휴직 외에도 정년퇴직자의 자취취득과 재취업 등을 돕는 전직지원센터도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SK에코플랜트는 경력 있는 중장년 현장지도 꾸준히 채용하고 있으며, 건설사 최초 주5일제 근무 시행, 금요일 4시 퇴근 등으로 타 건설사에서 이직하는 중장년 직원들도 많다고 사례집은 소개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60세 정년 이후 최대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축적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고용자 중 일부는 후배들에게 숙련 기술을 전수하는 사내 기술교육원의 전문교수로 임용



되기도 한다. 크라운제과의 경우 2016년 62세로 정년을 연장했으며 정년 이후에도 약 50%를 재고용하고 있다. 중장년 직원이 늘어나면서 작업장에 리프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작업장 환경도 개선했다.

이밖에 전체 직원의 74% 이상이 50세 이상인 한국정보기술 단, 신규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대원버스, 연령 대신 경력을 우선시하는 영동병원 등이 사례집에 담겼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우수기업 사례집을 통해 고용 인력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장년 고용 친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민성준 기자

준법감사심의필 제B230104호(2023.08.22. 기준)
유효기간 : 2023.08.22. ~ 2024.08.21.

이 예금은 해양수산부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공익상품입니다.

바다가꿈 정기예금

지금 우리 바다와 어촌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다가꿈 정기예금으로 바다사랑을 실천해주세요!

Sea & Love

예금 가입으로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기본금리
+0.2%p
(비대면 우대금리)

이 예금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조성을 위해 수협중앙회 부담으로 연 평균 순증액의 0.01%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해양수산부 지정 기부처에 출연하는 거치식 예금입니다.

- 이 예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인당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인터넷뱅킹 www.suhyup-bank.com 고객센터(전국) 1588-1515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고객의 상생 스토리

“내 꿈이 멈췄을 때 다시 달릴 힘을 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좋아서 시작한 학원인데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현실에 부딪혀
'학원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대출 만기 연장에 원리금 상환 관리까지
제가 몰랐던 여러 방법들을
신한은행이 먼저 알려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
저와 함께 해준 신한은행 덕분에
아이들 꿈도, 저의 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객에게 힘이 되는
상생금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경기악화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대출 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119, 개인사업자 119,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등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으로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은행이 응원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8000)에 문의 바랍니다. ■ 준법감사인 사전심사필 제2023-13258-1호(2023.07.14~2024.07.14)

내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소재 파악 안 되면 수사 의뢰”

‘대면 참석’ 원칙...취학 통지서, 온라인 발급 기간 확대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과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 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나 안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시행된다.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별·학교별로 다르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엄마 손 잡고’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취학 통지서를 소지한 채 자녀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가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으로 부득이 내년 입

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입학 전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신청하면 된다.

중도 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법무부와 정보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 언어 등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 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각 교육청이나 다문화 유관기관 등에서 제공된다.

교육부는 예비 소집 결과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뒤 현황을 내년 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는 예비 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2명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특별지원관은 “학부모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경 기자



업무협약하는 강진원(왼쪽) 군수

강진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제 도입 추진

베트남 풍합현과 계절근로자 협약 체결

전남 강진군은 베트남 풍합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다문화가정, 친인척 초청 등을 통한 농가형 외국인 근로제만으로는 농번기 폭증하는 노동력 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워지자 그 대안으로 마련됐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란 운영 주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일괄 채용한 후 노동력 수요가 발생하는 농번기 등에 농가와 직접 연결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군은 도암농협을 운영 주체로 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심의를 통해 도암농협이 운영 주체로 선정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내년도 농번기 이전에 투입할 목표로 현재 근로자용 기숙사 확보를 위해 마을회관이

나 빈집 등을 공모 중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로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받아 농번기 극심한 인력 문제를 완화하고 농촌 인건비 상승을 방지하는 등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군과 오랜 기간 우호 교류를 하는 풍합현과 계절근로제 등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진군과 지난 2013년부터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풍합현은 인구 18만 명이 거주하는 농업 지역으로 연간 3기작을 통해 쌀 생산량이 약 30만t에 달한다.

/ 이승호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공무원 정신건강 위해 범부처 협력...‘마음건강 협의체’ 출범

교육부·외교부 등 11개 기관 참여...심리재해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정부는 각 부처가 모여 공무원의 정신 건강 회복과 심리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마음 건강 협의체’를 29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인사혁신처·교육부·과학

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외교부·법무부(교정본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문화재청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다고 인사처가 밝혔다.

협의체는 ▲ 기관 간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현장 공무원 심리지원 협력 ▲ 기관별 심리 재해 사각지대 해소 및 개선 ▲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공무원 신속 지원 및 협력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계

획이다.

협의체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재난 발생 등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업무수행 능력과 직결돼 대국민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정환 기자

원자력연구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경주로 반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이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86드럼이 29일 경주 최종처분장으로 반출됐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원자력규제기관은 전날 열린 사전 운반검사에서 방폐물 이송 전 분비 및 방사능 외부 노출 여부 등 안전상 사전 점검을 마쳤다.

이번 방폐물 이송에는 운반 차량 6대 등 총 10대의 차량이 투입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음 달 239드럼을 추가로 반출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원자력 규제기관과 협력해 대전에 있는 중저준위 방폐물이 모두 반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저준위 폐기물 반출

대전에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3만976드럼 규모의 방폐물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유정 기자

김포골드라인 열차서 ‘타는 냄새’ 신고...“제동패드 손상”



높은 혼잡도로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출근 시간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운영사가 안전 점검에 나섰다.

28일 철도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 11건이 운영사에 들어왔다.

신고자들은 당시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하는 열차에 탑승한 뒤 깨어난 냄새가 심해지자 운영사뿐만 아니라

119나 112에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 전모(46)씨는 “고촌역에서 열차에 타기 전부터 타는 냄새가 올라왔고 탑승한 뒤에는 점점 더 냄새가 심해졌다”며 “승객이 짙 찬 상태라 겨우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119에 신고했고 김포공항역에서 내린 뒤에는 사도가 격정돼 112에도 신고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은 김포골드라인 운영사는 열차를 차량기지로 옮겨 점검했고, 합성 고무와 철 등을 함유한 열차 제동 패드가

손상되면서 타는 냄새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운영사는 앞서 열차 바퀴에 붙은 이물질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냄새가 났던 것으로 추정했으나 점검 이후 입장을 정했다.

운영사 관계자는 “제동 패드와 브레이크 제어 장치 간에 강한 마찰력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열차 제조사 합동점검을 벌여 열차 제동 장치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신재일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장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권리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을 가입할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정리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연 0.2%, 1억 이상·3억 미만·연 0.18%, 3억 이상·연 0.15%(장기계약 할인 및 디레버리지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일상을 플랫폼하다



LG유플러스 4대 플랫폼

초개인화된 맞춤형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_너겟

축구, 야구, 골프 등 모든 스포츠 팬을 위한

놀이 플랫폼_스포키

아이의 배움습관을 키우는 국내 최초 맞춤 교육 서비스,

성장케어 플랫폼_아이들나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시친구와 실감나게 체험하며 학습하는

Web 3.0 플랫폼_키즈토피아

LG유플러스의 4대 플랫폼이

모두의 일상을 원더풀하게 바꿉니다



붐비는 연말연시...서울시, 심야 택시 2천500대 추가 공급

‘승차난 종합대책’ 추진...버스 막차시간 연장·심야버스 증차

서울시가 택시 이용객이 몰리는 연말연시 심야 시간에 선제 대응하고자 택시를 추가 공급하고 심야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승차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택시업계·플랫폼사와 협력해 심야 택시 2천500대를 추가 공급한다.

심야에 택시 이용객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 택시업계와 협력해 승차대기 발생 예상지역 12곳에는 임시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와 승객을 일대일 연결한다.

임시 승차대는 오는 30일부터 8일간 매주 목·금요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 날 1시30분까지 강남역(2곳), 홍대입구역(2곳), 서울역(2곳), 종로2가, 건대입구, 삼양, 여의도역, 용산역, 수서역에 설치·운영된다.

택시업계와 서울시 직원 하루 108명 규모로 구성된 ‘심야승차지원단’이 현장에서 택시와 승객을 직접 연결해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하고 승차 거부를 관리한다.

택시 플랫폼사는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카카

오 택시, 타다 택시, 아이엠 택시, 우터 택시, 티머니 온다 택시 등이 참여한다.

승차 거부 단속도 강화한다.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4시30분~다음 날 오전 2시30분 86명을 투입해 승차 거부 행위를 단속한다. 거짓 예약표시등을 켜두거나 택시표시등을 소등한 채로 승객을 골라태우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버스는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까지 시내 이동 수요 밀집 11개 지점을 경유하는 87개 노선의 막차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같은 기간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14개 전 노선의 운행 대수를 2대씩 증차한다. 올빼미버스 노선과 운행 정보는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토피스(TOPIS)와 서울교통포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택시기사가 고령화되고 법인택시 기사들의 유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심야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려면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선취업 후 운전자격 취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에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택시를 빌려 영업한 뒤 수입금을 가져가는 법인택시 리스제는 지난해 법인택시조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도입하고자 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선취업 후 운전자격 취득제는 현행 제도에서는 구직자가 택시회사에 취업하기까지 한두 달이 걸리는데 임시 운전자격을 발급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법인택시조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연말도 시민의 야간시간대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선제로 택시, 대중교통 수송력을 늘려 연말연시 시민의 안전하고 빠른 귀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유치 시민 응원전에서 부산의 2030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자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 여야 “엑스포 유치 실패했지만, 재도약 발판 삼아야”

부산 여야 정당들은 29일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것은 안타까운 결과지만, 유치경쟁에서 보여준 역량을 부산 재도약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엑스포 유치과정에서 부산 시민이 보여준 열기와 응원은 세계에 큰 감동을 줬다”면서 “대한민국의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사우디보다 뒤늦게 유치 활동을 펼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치전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엑스포 유치와 함께 추진했던 가덕 신공항 조기 완공과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엑스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선 부산 시민과 지역 상공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위

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이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다”면서 “가덕 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과 부·울·경 메가시티,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제는 엑스포 유치 경쟁으로 외면한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시 예산에서 지출한 대외홍보비와 출장비 명세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시민이 보여준 역동성이 엑스포 유치전에서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 대응과 부산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정미 기자

제주농협, 내년 농업·농촌 예산 증액 편성 건의



제주농협은 제주도의회에 내년 농업·농촌 관련 예산 증액 편성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재춘 농협제주본부장, 김성범 제주도 농협운영협의회장(중문농협 조합장), 김진문 제주시농협운영협의회장(조천농협 조합장) 등은 전날 제주도의회를 방문, 김경학 도의회 의장을 면담했다.

윤 본부장 등은 이 자리에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농업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

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므로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농업의 중요성은 도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농업 관련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 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보면 총예산은 2.07% 증가했으나 농업·농촌 예산은 2.0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농협은 도내 총생산의 11.1%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국과 비교해 5.5배 높은 것이다. / 유진수 기자

포항지진 위자료 국가 일괄배상 포항시민 목소리 확산

지진 관련 단체, 지진특별법 개정 촉구...포항시·변호사회도 입장 재확인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 촉구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일괄 배상받을 수 있게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경북 포항시민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포항지진시민연대, 포항11·15지역발전공동연구단은 2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를 일괄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국가 차원의 일괄배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포항시는 지난 27일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 역시 “50만 명의 시민 모두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형태로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 없이 정부가 일괄 배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과 같은 당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도)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양정수 기자

‘눈꽃 동행축제’ 내달 개막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50% 할인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 캠페인인 동행축제의 올해 마지막 행사로 ‘눈꽃 동행축제’가 내달 4일 시작해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주요 유통채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이 최대 50% 할인 판매되고 전국 곳곳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연말을 맞아 ‘온기 나눔’ 캠페인도 진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막식은 내달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열리며 지난 5월 봄꽃 동행축제와 9월 황금벌 동행축제에 참여한 전국 향토기업과 동행 제품 기업, 백년

가게,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 판촉에 나선다.

중기부 산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제품 판매전을 열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공주 삼성 상권 등 전국 주요 상권 11곳은 크리스마스·연말연시를 맞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이벤트를 한다. 춘천 호반체육관과 전주 한옥마을 등 30여곳에서는 지역 숨은 명소와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행사 기간 내내 계속될 예정이다.

쿠팡과 G마켓, 공영쇼핑, 배달의민족 등 주요 유통채널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200여개 채널은 크리스마스, 연말연

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번 동행제품은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100개를 엄선했고 이 중 70개 제품 판매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는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도수가 30만원 상향 조정돼 모바일·총선식 카드의 경우 최대 180만원까지 10%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눈꽃 동행축제 기간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펼쳐진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동행축제 기획전에 참여한 유통채널 14개,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기부금 제공이나 물품 기부에 나선다. / 남현철 기자

SAMSUNG

Galaxy Watch6 Classic Golf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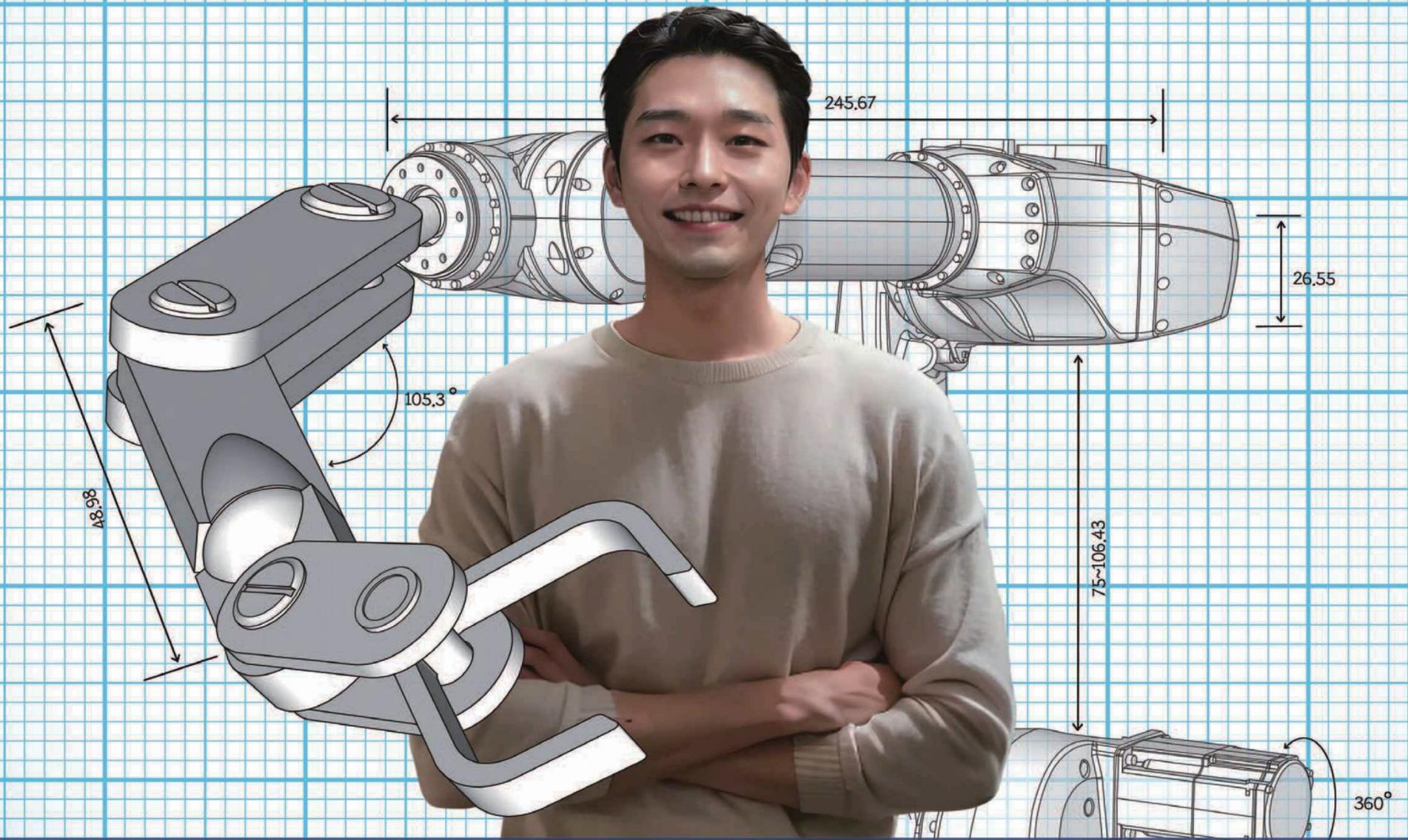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상가 이미지는 이해를 위해 연출된 화면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로봇개발자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꿈을 응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IBK기업은행이 창업기업을 위한 더 큰 응원을 시작합니다.
혁신창업기업지원통장으로 당신의 힘을 더해주세요.



누구나 가입 가능한

IBK혁신창업기업지원통장

※위 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예금수익은 혁신창업기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본형	·고시금리 연 3.15% ~ 연 3.30%
실세금리 정기예금	·우대금리 최고 연 0.10%

기본형	·고시금리 연 3.10% ~ 연 3.25%
중소기업 금융채권 (특리채)	·우대금리 최고 연 0.10%

기여형	·고시금리 무이자
실세금리 정기예금	·우대금리 없음

*고시금리는 가입기간별 상이하하며, 가입일에 따라 변동가능 (23. 07. 06, 현재, 세전) *우대금리 제공조건: 기본형 가입 시 혁신창업기업 지원 메시지 등록 (자동인자)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IBK비금융서비스

IBK창업컨설팅
창업 초기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제공

IBK창업
사무공간제공, 멘토링,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IBK BOX
금융·비금융 솔루션 제공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303호(2023.07.06) 유효기간(2024.07.05) ※이자는 만기 일시지급식이며, 중도해지시 우대금리는 제공되지 않음(기여형의 경우 원금만 지급)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집권설정 등 압류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지연 ※실세금리정기예금은 매월저리보통예금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대당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원금보통예금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개별 상품에 관계없이 귀하의 모든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ibketh@ibk.co.kr)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민 이적에 불난 SSG 팬들...구단에 근조화환 보내 항의

프로야구 SSG 랜더스 팬들이 최근 김강민의 한화 이적과 관련해 구단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SSG 홈구장인 인천 문학경기장 일대에는 구단을 향한 팬들의 항의가 담긴 근조 화환 50여개가 잇따라 설치됐다.

근조 화환에는 '삼가 인천 야구의 명복을 받는다'라는 조의와 함께 '굴러들어온 2년이 멍청한 23년', '세상에 없어야 할 야구단' 등 불만을 표출하는 문구가 적혔다.

또 '책임자 전원 사퇴하라', '김강민 영구결번', '스카우트(SSG 프런트) 영구제명' 등 구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15년 차 야구팬이라고 밝힌 30대 김모씨는 이날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 유니폼을 입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2차 드래프트 과정에서 구단의 어설픈 대응 탓에 팀 레전드를 떠나보내 많은 팬이 상실감에 빠져 있다"며 "구단 측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일부러 SK 유니폼을 입고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이번 사태를 보고 베테랑 선수들이 홀대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화환 발송에 참여했다"며 "구단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인천시 미추출구 문학경기장 일대에 SSG 랜더스 구단을 향한 팬들의 항의가 담긴 근조 화환이 설치돼 있다.

다"고 지적했다.

앞서 SSG는 지난 22일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가 4라운드 전체 22순위 김강민을 지명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SSG 팬들은 구단이 2차 드래프트 전 김강민을 보호선수 35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안이한 처사로 이적을 자처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화의 경우 드래프트 전 투수 정우람을 플레이 코치

로 선임하며 다른 구단의 지명을 막았지만, SSG는 김강민에 대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SSG 팬들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근조 화환을 지키며 항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강민은 최근 한화 구단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과 소중한 추억들을 잘 간직해 새로운 팀에서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며 현역 연장 계획을 밝혔다.

/ 최준용 기자



한국시리즈 관전하는 류현진

MLB 전 단장, 류현진 행선지로 캔자스시티 예상 "1년 103억원"

류현진을 트레이드 매물로 활용할 가능성 언급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6)이 스몰마켓 구단인 캔자스시티 로열스에 입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단장 출신 칼럼니스트인 짐 보우덴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매체 디에슬레틱을 통해 MLB 주요 자유계약선수(FA)들의 행선지와 몸값을 예상하면서 류현진과 이정후를 언급했다.

보우덴은 "류현진은 인센티브를 포함해 계약기간 1년, 총액 800만 달러(약 103억원) 규모의 대우를 받고 캔자스시티에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캔자스시티는 경기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검증된 선발 투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우덴 칼럼니스트가 류현진의 캔자스시티행을 예상한 이유는 또 있다. 캔자스시티가 류현진을 트레이드 매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캔자스시티는 올해(마무리투수) 아롤디스 체프먼을 영입한 뒤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두고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텍사스 레인저스에 트레이드로 보냈다"라며 "꽤 성공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보우덴은 캔자스시티가 올해도 비스

한 행보를 걸을 것으로 판단한다. 일종의 투자 목적으로 류현진을 영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보우덴 칼럼니스트는 "류현진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뒤 올해 복귀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라며 올 시즌 성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포스트시즌을 통해 MLB 진출을 노리는 이정후(25)의 몸값은 계약기간 4년, 총액 6천만 달러(773억원)로 예상했다.

보우덴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정후의 가장 유력한 계약 대상"이라며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가 타율 0.270~0.290 수준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정후는 KBO리그에서 삼진보다 볼넷을 많이 얻은 만큼 좋은 선구안을 갖고 있고 외야 수비력도 좋다"고 했다.

올겨울 최고의 FA로 꼽히는 오타니 쇼헤이의 행선지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로 점쳤다. 계약기간 10년, 인센티브를 포함한 계약 총액 5억 달러(6천440억원)를 예상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일본 출신 선발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뉴욕 메츠와 계약 기간 7년, 총액 2억1천100만 달러(2천719억원)에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신경준 기자

프로배구 한국전력, 3위 삼성화재까지 꺾었다...파죽의 5연승 여자부 정관장은 최하위 페퍼저축은행 누르고 5연패 탈출



기뻐하는 한국전력 선수들

올 시즌 초반 최하위권을 맴돌던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3위 삼성화재마저 무너뜨리며 파죽의 5연승을 내달렸다.

한국전력은 28일 경기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남자부 홈 경기에서 삼성화재에 세트 점수 3-1(14-25 25-23 25-22 25-20)로 승리했다.

5위 한국전력은 6승 6패 승점 18을 기

록하며 3위 삼성화재(7승 4패 승점 19)를 승점 1 차이로 추격했다.

한국전력은 1세트에서 상대 팀 강서브에 고전했다. 외국인 선수 타이슨 달 호스트(등록명 타이슨)와 임성진은 번번이 서브를 받지 못했다.

한국전력의 1세트 팀 리시브 효율은 26.32%에 불과했고, 삼성화재는 1세트에

서만 서브 에이스 3개를 올렸다.

수비가 무너지니 공격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이렇다 할 플레이를 펼치지 못하고 1세트를 쉽게 내줬다.

한국전력이 살아난 건 2세트부터다. 타이슨과 임성진은 상대 서브에 적응을 마친 듯 안정적인 리시브를 펼쳤고, 강한 공격까지 펼쳤다.

집중력도 한 수 위였다. 한국전력은 2세트 23-23에서 임성진이 오픈 공격을 성공한 뒤 신영석이 상대 팀 김준우의 스파이크를 막아내며 세트 스코어 1-1 동률을 이뤘다.

한국전력은 3세트도 점전 끝에 가져왔다. 승부처에서 나온 임성진의 활약이 대단했다.

임성진은 21-21에서 연속 득점을 했고, 23-21에서 요스바니 에르난데스(등록명 요스바니)의 강한 후위 공격을 블로킹해 추격 의지를 꺾었다.

/ 강동호 기자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마마 어워즈' 첫날 대상에 BTS... "더 큰 하나가 돼 만날 것"

임영웅·TXT·스키즈 본상 '20주년' 동방신기도 수상... 나머지 3개 대상은 내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케이블 채널 엠넷이 주최하는 연말 음악 시상식 '2023 마마 어워즈'(2023 MAMA AWARDS) 첫날 대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28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이 시상식 1일 차 행사에서 4개의 대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삼성 갤럭시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의 주인공으로 지명됐다. 나머지 3개의 대상은 다음날 발표·시상한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부터 6년 연속 이 시상식에서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를 품에 안았다.

지난해 말형 진을 시작으로 현재 제이홉과 슈가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며 팀 활동에 '쉽표'를 찍은 상태라서 방탄소년단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팀의 막내 정국은 영상으로 전한 수상 소감에서 "벌써 6번째 (이 상의) 주인공이 됐는데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람을 보내 주시는 아미(방탄소년단 팬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다 같이 만나지는 못해 아쉽지만, 곧 더 큰 하나가 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방탄소년단은 멤버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는 2025년 팀 활동 재개를 약속한 바 있다. 정국은 "그때까지 건강하고 매 순간 행복하게 보내시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다리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은 10대 본상에 해당하는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도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

방탄소년단 외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제로베이스원, 엔하이픈, 임영웅,

에이티즈, NCT 드림, 스트레이 키즈, 세븐틴, 트와이스도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를 받았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그룹 동방신기는 '인스파이어링 어치브먼트'를 수상했다. 동방신기는 이날 신곡 '다운'(Down)을 처음 선보였고, 후에 그룹 라이즈와 함께 히트곡 '라이징선'(Rising Sun) 무대도 꾸몄다. 특히 그간 발표한 대표곡 안무를 댄스 브레이크로 풀어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일본의 전설적인 밴드 엑스재팬의 드

러머이자 리더 요시키는 '페이보릿 인터내셔널 아티스트'에 선정됐다.

요시키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태현·휴닝카이, 보이넥스트도어의 명재현, 라이즈의 앤론, 제로베이스원의 한유진과 함께 국내에도 잘 알려진 엑스재팬 히트곡 '엔드리스 레인'(Endless Rain) 무대를 선사했다.

그는 "이렇게 멋진 K팝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협업)을 하게 돼 너무나 기쁘다"며 "멋진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 '비비고 컬러 앤 스타일' 스트릿 무브 파이터 2, '페이보릿 뉴 아티스트' 라이즈·제로베이스원, '페이보릿 아시안 남자 그룹' INI, '페이보릿 아시안 여자 그룹' 케플러, '갤럭시 네오 플립 아티스트' 트레저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마마 어워즈'는 다음 날인 29일에도 열린다. 2일 차 시상식에서는 세븐틴, 트레저, 르세라핌 등이 무대에 오른다.

/ 홍지민 기자

'밤에 피는 꽃' 이하늬, 전무후무 K여성 캐릭터의 탄생! 1차 포스터 공개!



'밤에 피는 꽃'의 이하늬가 두 얼굴을 가진 열녀로 돌아온다.

내년 1월 12일 첫 방송을 앞둔 MBC 새 금드라마 '밤에 피는 꽃'은 이하늬(조여화 역)의 비장한 얼굴을 담은 1차 포스터를 공개하며 범상치 않은 캐릭터의 탄생을 알렸다.

28일(오늘) 공개된 1차 포스터에는 15년 차 수절과부 조여화로 분한 이하늬가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소복을 입은 이하늬가 결연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특히 그녀의 눈가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묘한 긴장감과 카리스마를 느끼게 한다.

또한 그녀를 감싸고 있는 그림자는 마치 복면을 쓴 것과 같은 느낌을 주며 그녀가 펼칠 이중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기에 '지엄한 국법이 힘없는 백성을 구할 수 없다면 내가 그들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카피는 국법의 허점을 꼬

집으며 정의감으로 백성들을 구할 조여화의 활약을 예고,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극 중 조여화는 낮에는 조신한 수절과부로, 밤이 되면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담을 넘는 전설적인 인물로 돌변해 고군분투한다. 그녀의 예상을 뒤엎는 파란만장한 이중생활이 극을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가며 보는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밤에 피는 꽃' 제작진은 "낮에는 소복을 입고 있지만, 밤에는 무사복에 복면을 쓰고 담을 넘는 그녀의 이중생활을 흑과 백에 담았다"면서 "1차 포스터를 통해 여화 캐릭터가 지닌 인물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 이청근 기자

최민식·김고은 주연 오컬트 영화 '파묘' 내년 2월 개봉

최민식 주연의 오컬트 영화 '파묘'가 내년 2월 개봉한다고 배급사 쇼박스 29일 밝혔다.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그린 작품이다.

최민식이 땅을 찾는 풍수사 상덕 역을, 김고은이 원혼을 달래는 무당 화림 역을 각각 맡았다. 유해진은 장의사 영근을, 이도현은 무당 봉길을 연기했다.

'검은 사제들'(2015), '사바하'(2019)를 통해 탄탄한 오컬트 세계관을 구축한 장재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 차현수 기자

'소년시대' 첫 주부터 빵 터졌다! 쿠팡플레이 인기작 1위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가 공개와 동시에 쿠팡플레이 인기작 1위에 등극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1월 24일(금) 1, 2화를 동시 공개

한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를 향한 시청자들의 열띤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소년시대'는 1989년 충청남도, 안 맞고 사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인 온양 찌질이 '병태'가 하루아침에 부어 짱으로 둔갑하

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먼저, 매 작품 새로운 인생 캐릭터를 경신해온 대세 배우 임시완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년시대' 1, 2화를 본 시청자들은 "표정, 말투, 몸짓이 '병태' 그 자체"(한***), "임시완 연기 미쳤어요 웃기고 귀여워ㅋㅋ"(s***), "임시완 또 캐릭터 잡아 먹었네 이번엔 얼굴까지 같이 끼움 ㄷㄷ"(갈***), "상상했던 '병태'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느낌. 요즘 몰론 배우답게 보자마자 진짜 옛날에 저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실게 감탄이 절로 나왔다"는 이명우 감독의 말처럼 임시완은 독보적인 캐릭터 소화력으로 코믹 연기까지 접수, "믿고 보는 배우"임을 입증하고 있다.

1980년대 충청도를 배경으로 선보이는 '소년시대'만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든 시청자의 반응도 눈길을 끈다. 특히 느릿하게 치고 빠지는 충청도식 대화장 화법에 취향 저격 당한 이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

'열혈사제' '어느 날' 등 수많은 인기작을 탄생시킨 흥행 메이커 이명우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에 대한 호평도 빼놓을 수 없다. 이명우 감독이 선보이는 다이내믹 청춘 활극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우 감독 작품 특유의 개성만점 캐릭터는 물론, 극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배우들의 캐릭터 소화력과 연기 앙상블 역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개되자마자 쿠팡플레이 인기작 1위에 등극, 4.6점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호평 세레가 이어지고 있는 '소년시대'의 3, 4화는 이번주 금요일, 12월 1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를 통해 만날 수 있다.

/ 손현수 기자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Hello, 미래!"

기다리지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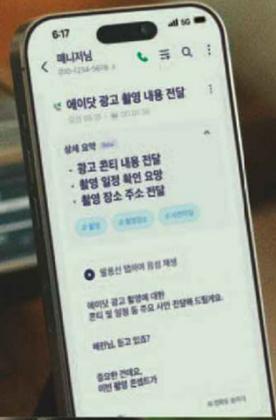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 WAVE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잠결에 나는 통화 내용도 녹음하고 요약해 뒀어요



iPhone 통화녹음 내용을 쉽게 검색해 보세요



운전 중 통화한 내용도 녹음하고 기록해 뒀어요



놓친 통화 내용은 통화녹음으로 확인해 보세요



통화 내용의 일정도 쉽게 등록하세요



| 통화 내용을 녹음, 요약, 검색까지 해 주는 A. 통화요약

A. iPhone 통화녹음이 필요할 땐 나만의 AI 개인비서, 에이닷

SKT의 AI는 누구에게나 있다
AI for Everyone
SK telecom

